韓國心理學會誌: 女性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1997, Vol. 2, No. 1, 89-101

주관적 삶의 질에 나타난 성차의 원인

이명신 · 이훈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의 평가에 나타나는 '성차'를 그들의 욕구충족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근로자들로 총 2410명이었다. 연구결과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한 삶의 만족도와 삶의 느낌 모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욕구가 남성보다 덜 충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충족도에서의 성차는 순수한 성의 효과라기 보다는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온 사회과학분야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적 관계, 집단행동 등을 연구하고,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정당성, 사회운동, 사회계층 등을, 의사들은 인간 유기체의 정상적이고 병리적인 구조와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사회과학의 자료들에서 얻어지지만 또한 좀더 객관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지표연구(social indicators research)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OECD의 사회지표 개발프로그램으로 국가간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준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1982년에 공식적인 OECD 사회지표 목록이 보고되었다.

사회지표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논쟁 중 하나는 사회적 조건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객관적인 수준만을 측정하느냐 아니면 주관적인 수준도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각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삶의 질의 주관적 측정이 중요시되었다(Campbell, 1976; Near, Smith, Rice, & Hunt, 1983).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비교해볼 때 객관적인 사회지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비가 들며, 둘째 정부와 지방단위의 통계 상호간에 비교 · 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지역간 · 부문간의 비

교가 비교적 용이하다. 셋째, 대체로 시계열 자료를 구함으로써 사회적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주관적 자료는 우선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시설과 자원이 국민들이 원하는 상태와 일치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둘째,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또한 경제적 성장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1996).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사회지표의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는 삶의 질 연구에서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질 연구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측정문제와 관련하여 사회학자인 Szalai (1980)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해서 「삶의 질」의 정의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의 결론에 따르면 「삶의 질」은 개인의 여러가지 생활측면에서 느끼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나타내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구성요소를 열거하면, 건강상태, 자기 직업에서의 만족과 불만족, 경제상의 문제, 결혼생활의 성공과 실패, 자녀 및 친척간의 화목한 관계 또는 갈등관계, 또는 이웃간의 관계, 사업상의 문제, 일반적·정치적 상황 등을 포괄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지표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 관한 객관적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하여 새로운 사회지표는 이것 외에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 지각 및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바로 이 새로운 지표가 「삶의 질」의 지표가 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Szalai는 삶의 질이란 여러가지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한 어떤 사회나 개인의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지표 외에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혹은 만족감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삶의 질 측정의 객관적 요인 뿐 아니라 주관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실제로 주관적 삶의 질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주관적 삶의 질의 평가는 주로 감정에 근거한 평가(감정적 요소;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와 인지에 근거한 평가(인지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는 드물다(Chamberlain, 1988). Campbell (1981)의 지적대로 이러한 구분은 대게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한 것으로 초점을 삶의 만족에 둘 때 그 평가는 인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일상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평가할 때는 감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Andrews와 McKennell(1980; McKennell & Andrews, 1983)은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된 23개의 주관적 삶의 질 연구자료 중 전반적인(life-as-a-whole)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한 도구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들은 각각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문항들이 감정과 인지 그리고 다른 요소들(예를들면 측정오차 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된 측정치들의 전체변량은 대부분 5가지의 요소들(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인지, 공통변량, 고유변량)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요소들의 비율은 측정치마다 다양하였다.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을 '행복(happy)', '흥미(fun)', '즐거움(enjoyableness)'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감정적 요소의 비율이 인지적 요소보다 높았으며, '만족도(satisfaction)'라는 용어가 포함된 측정치들은 인지적 요소의 비율이 감정적 요소의 비율보다 높았다. 또한 그들은 전반적인 주관적 삶은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각각으로 측정하였을 때보다 두 요소의 비율을 적절하게 혼합함으로서 더 잘 측정된다고 하였다.

감정적인 요소로 주관적 삶의 질을 연구하는 자료들에 의하면 감정적 요소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로 구분되고 있다(Andrews & Withey, 1974; Diener & Emmons, 1984; Headey, Holmstrom, & Wearing, 1984; 1985). 많은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Emmons & Diener, 1985a; Diener & Larsen, 1984; Kammann, Farry, & Herbison, 1984; Stones & Kozma, 1985; Warr, Barter, & Brownbridge, 1983), 예를 들어 정서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한 Bradburn(1969)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대체로 독립적임을 밝혔다.

Bradburn은 피험자에게 긍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문항과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문항을 제시하고 '지난주 동안 이런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가'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긍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문항과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문항들 간에 강한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서로 관계가 없었고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긍정적 감정이 강한 사람은 또한 부정적 감정도 강하게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Bradburn의 연구 이후 이와 비슷한 결과는 반복되어 나타났지만, 몇몇 연구들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Wilson, 1967; Zautra, Guaraccia, & Reich, 1988). 이렇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간에 다른 상관관계가 나타난 이유는 감정을 측정하는 시기와 측정문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다(Emmons & Diener, 1985a; Diener & Larsen, 1984; Kammann, Farry, & Herbison, 1984; Stones & Kozma, 1985; Warr, Barter, & Brownbridge, 1983). 따라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독립적인가의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최근 Diener 등(1991)의 연구에서는, 어느 한 순간에는 하나의 감정이 다른 감정을 압도하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독립적이지 않으나 일정 기간을 두고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측정하면 둘간의 관계는 약화됨이 밝혀졌다.

또한 Watson과 Tellegen(1985)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서로 다른 요소들과 상관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즉 부정적 감정은 건강이 안좋음, 걱정, 불안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으나, 긍정적인 감정은 이러한 것과는 관련이 되어있지 않았다. 반면 긍정적 감정은 사회적 참여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으나 부정적 감정은 이것과 관련이 없었다.

각 개인들은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을 다르게 평가하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가지 시각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인간의 욕구와 관련하여 진행되어온 삶의 질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관적 삶의 질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욕구, 목표, 바램 등의 충족은 행복과 관련이 되어 있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경우 불행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현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간의 차이(gap)에 초점을 두어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한다. 여기에서 차이는 욕구수준과 성취수준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욕구수준은 대개 지각된 성취수준보다 높을 것이고 그 차이가 적을수록 주관적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Michalos(1986)는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욕구수준과 성취수준과의 차이를 결정하게 되는 준거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최고의 것, 현재 갖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갖기를 원하는 것 등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자. 연구들에 의하면 성, 수입, 교육, 연령 등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가? Inglehart(1990)는 24개국의 GNP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국가간의

富와 주관적 삶의 질은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후진국에서 수입에 대한 만족은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衣·食·住는 '안녕(well-being)'에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Diener & Diener, 1995).

그러나 필수적인 것들이 충족되면 富의 증가는 '주관적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富는 건강과 비슷해서 이것이 없으면 참혹해지지만 이것이 충족된다고해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미국의 최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보통의 미국인들보다 단지 약간 더 행복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37%는 평균적인 미국인들보다 덜 행복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단지 일시적인 즐거움만을 나타냈을 뿐 장기적인 행복감은 느끼지 못하였다(Brickman, Coastes, & Jannoff-Bulman, 1978).

교육의 문제는 수입과 연관되어 있으나 그 관계는 매우 밀접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생산직 근로자 중 많은 기능공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무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수입이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Campbell, 1981).

또한 주관적 삶의 질은 연령과도 관계가 있는데 Campbell 등(1976)은 주관적 삶의 질의 인지적 요소인 만족도는 연령과 함께 증가하지만 감정적 요소는 오히려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대개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만족도는 연령과 함께 증가하지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젊은이가 좀더 강하게 느낀다. 따라서 젊은이는 강도 높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좀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적인 요소인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감정적인 요소는 감소하게 된다(Diener, Sandvik, & Pavot, 1991).

남성과 여성은 생리적, 성격적, 그리고 상황적 요소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평가에 성차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여성과 남성은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다르게 평가하는가? 여성은 좀더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만 또한 좀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같다. 앞의 글에서 본 바와 같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서(Diener, Larsen, Levine, & Emmons, 1985; Warr, Barter, & Brownbridge, 1983), 주관적 삶의 질을 긍정적 감정으로 측정한 것과 부정적 감정으로 측정한 것간에 차이를 보인다. Wood 등(1989)은 긍정적 감정만으로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하고 삶에 더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또다른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더 우울하다고 보고하였다(Govo, 1972; Nolen-Hoeksema, 1987).

직업이 있는 여성과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상관연구에 의하면 전자는 후자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였다(Verbrugge, 1989). 직업을 갖는다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혼 여성이나 미혼 여성 모두 직업을 가짐으로써 건강이 증대되었는데(Nelson & Hitt, 1992), 그 이유는 통제감, 사회적 지원, 경제적 보상, 자아존중감 등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Baruch, Biener, & Barnett, 1987; Rodin & Ickovics, 1990).

비록 직업이 있는 여성이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더 건강하더라도 구체적인 작업 환경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직업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스트레스 원에 노출되지만 또한 성차별, 고정관념, 직업/가정과의 갈등과 같은 독특한 스트레스 원에 직면하게 된다(Nelson & Quick, 1985). Wiely 와 Eskilson(1988)의 연구에서는 남성 경영자와 여성 경영자에게 가정과

직무책임감간의 갈등을 평가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갈등은 남성보다 여성의 직무성과를 일관되게 낮게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여성은 많은 역할 때문에 직업과 가정의 갈등을 야기하기 쉽고 이러한 갈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스트레스 원이 된다(Nelson & Hitt, 1992).

직업 여성의 또 다른 스트레스 원은 경력개발(career progress)이다. 남성 또한 이 스트레스 원에 직면하게 되지만 특히 여성에게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여성은 낮은 직위의 직업군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Nelson & Hitt, 1992). Haynes 등(1980)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경력개발의 제한으로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작업장에서의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성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성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남을 제시했을 뿐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주관적 삶의 질에 나타난 성차에 초점을 두되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났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이 연구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조사하기위한 표본조사 자료중 일부를 분석하였다(이명신, 인쇄중). 조사대상자수는 대기업 1762명(생산직 866명, 사무직 896명)과 중소기업 618명(생산직 326명, 사무직 292명) 모두 2380명이었다. 이중 남자가 1760명(72.9%), 여자는 653명(27.1%)이었다. 결혼여부를 보면 미혼이 1062명(44.1%), 기혼이 1330명(55.3%), 기타 14명(0.6%)이었다. 나이는 30-39세가 40.7%(95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29세의 38.4(899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9.8세였다. 임금은 50-100만원이 43.9%로 제일 많았고(972명), 100-150만원이 28.3%, 50만원 이하가 16.9%였다.

측정도구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주관적 삶의 질, subjective well-being)를 측정하기 위하여 Campbell(1976)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을 재는 7점척도의 짝진 형용사 8문항(재미있는-지루한, 즐거운-비참한, 가치있는-쓸모없는, 우호적인-외로운, 가득찬-텅빈, 희망적인-비관적인, 보람있는-실망스러운, 행운이 따르는-운이 없는)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재는 단일문항의 두가지로 구성되어있다. 8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균을 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중 단일문항인 '삶의 만족도'는 본래 7점 척도이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욕구충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총 10문항(각 단계마다 2문항씩)을 제작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그 문항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인분석하였다. 먼저 욕구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간의 상관행렬을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보다 큰 고유가(eigen value)를 지니는 요인들이 2개가 산출되었다. 또한 스크리 검정(scree plot)을 살펴본 결과 이들 두 요인들이 총변량의 약 40%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2개의 요인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의

개수를 2개로 지정하고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는데 구성개념의 성질상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요인I 은 4번 문항에서 10번 문항까지이며, 요인II 는 1번 문항에서 3번까지의 문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 I을 「성장욕구」로, 요인II를 「환경적 안전욕구」로 명명하였다.

(욕구충족 측정문항)

1. 환경오염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
2.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는 것
3. 범죄가 없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4. 좋은 직장을 갖는 것
5. 행복한 가정생활
6. 돈독한 우정
7.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8.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9.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10. 삶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결 과

성별 주관적 삶의 질 비교

표1은 성별 주관적 삶의 질(삶의 느낌, 삶의 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이다. 남성은 여성보다 삶의 느낌도 긍정적이었으며(남성 평균=4.59, 표준편차=1.15; 여성 평균=4.18, 표준편차=1.27, t=7.41, p<.001),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남성 평균=6.50, 표준편차=1.78; 여성 평균=5.56, 표준편차=1.94, t=10.79, p<.001). 주관적 삶의 질의 성별차이가 연령과 상호작용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별로 좀더 세분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표2는 삶의 만족도와 삶의 느낌에 연령별 성차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

표 1. 성별 삶의 만족도와 삶의 느낌 평균 및 표준편차

	남성(1754명)		여성(648명)		
	M	SD	M	SD	t-값
삶의 느낌	4.59	1.15	4.18	1.27	7.41***
삶의 만족도	6.50	1.78	5.56	1.94	10.79***

와 같이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 결과에서는 25세 이하의 연령층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증가와 더불어 만족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F_{(2,2230)}$=18.19, p<.001). '삶의 느낌'에서는 '25세 이하'의 근로자층에서 가장 낮았으며 연령증가와 더불어 삶의 느낌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_{(5,2222)}$=9.74, p<.001).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감정적 요소는 연령과 더불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Diener 등, 199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젊은층에서 '삶의 느낌'이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조사대상자의 특성때문일 것인데 이 연구의 표본은 근로자들로서 '25세 이하'의 근로자집단은 교육받을 나이에 교육받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느낌이 다소 덜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 삶의 질 평가에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삶의 만족도와 삶의 느낌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였다.

욕구 충족도에서의 성차

우리는 위에서 '삶의 만족도'와 '삶의 느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뿐 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의 분석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삶의 느낌'을 합산하여 '주관적 삶의 질'로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욕구충족도에도 주관적 삶의 질에서와 같이 성차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표3은 성별 환경적 안전욕구와 성장욕구의 중요도 및 충족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적 안전욕구와 성장욕구 모두 중요도에서는 성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환경적 안전욕구 중요도 남성평균=4.38, 표준편차=.56, 여성평균=4.35, 표준편차=.50, t=1.32, p<n.s; 성장욕구 중요도 남성평균=4.30, 표준편차=.52, 여성평균=4.23, 표준편차=.48, t=1.72, p<n.s). 그러나 욕구의 충족도에서는 성차이가 나타났다. 환경적 안전욕구의 충족도에서는 성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남성평균=2.58, 표준편차=.64, 여성평균=2.61, 표준편차=.66, t=-.94, p<n.s) 성장욕구의 충족도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성근로자는 평균 3.10(표준편차=.51), 여성근로자는 평균 2.98(표준편차=.56)로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성장욕구가 덜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96, p<.001).

또한 표4는 환경적 안전욕구와 성장욕구가 주관적 삶의 질(삶의 만족도와 삶의 느낌을 합한 점수)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환경적 안전욕구(β=-.01, p<n.s)와 성장욕구(β=.46, p<.001)는 주관적 삶의 질을 21%($F_{(2,2141)}$=675.49, p<.001)를 설명하고 있다. 즉 성장욕구가 충족되면 될수록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주관적 삶의 질에 성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욕구충족정도에 성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욕구수준은 같으나 그 욕구의 충족정도가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장욕구면에서 여성은 충족되고 있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충족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순수한 성의 차이인

표 2. 연령별, 성별 주관적 삶의 질(삶의 만족도, 삶의 느낌)의 평균 및 표준편차

		25세 이하 (647명)	26-30세 (561명)	31-35세 (540명)	36-40세 (305명)	41-45세 (129명)	46세 이상 (46명)
삶의 만족도	전체	5.68(1.94)a	6.42(1.82)b	6.42(1.71)b	6.59(1.85)b	6.61(1.86)b	6.78(1.96)b
	남성	6.26(1.87)a	6.46(1.80)a	6.43(1.71)a	6.63(1.82)a	6.67(1.78)a,b	7.00(1.98)b
	여성	5.49(1.92)a	6.05(1.99)b	6.00(1.73)a	5.56(2.70)a	5.63(2.83)a	5.63(1.51)a
삶의 느낌	전체	4.22(1.25)a	4.60(1.24)b	4.59(1.12)b	4.56(1.07)b	4.50(1.13)b	4.88(1.09)c
	남성	4.55(1.23)a,b	4.63(1.21)a,b	4.59(1.11)a,b	4.56(1.08)a,b	4.51(1.11)a	4.85(1.09)b
	여성	4.12(1.24)a	4.42(1.47)a	4.57(1.21)a	4.61(.89)a	4.31(1.57)a	5.13(1.21)b

주) · 「삶의 느낌」은 7점 척도, 「삶의 만족」은 11점 척도.
· 영문 첨자가 다른 경우는 Scheffe검증시 p<.05수준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성별 환경적 안전욕구와 성장욕구의 중요도 및 충족도 비교

		남성(1754명)		여성(648명)		
		M	SD	M	SD	t-값
환경적 안전욕구	중요도	4.38	.56	4.35	.50	1.32
	충족도	2.58	.64	2.61	.66	-.94
성장욕구	중요도	4.30	.52	4.23	.48	1.70
	충족도	3.10	.51	2.98	.56	4.96***

*** p<.001

에 나타나는 '성차'를 그들의 욕구충족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위한 하위척도로 삶의 만족도와 삶의 느낌을 측정하였는데 두 측정치 모두에서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보다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였다.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보다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욕구가 여성근로자보다 더 충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충족도에서의 성차이는 순수한 성의 효과라기보다는 여성근로

표4. 환경적 안전욕구, 성장욕구변인이 주관적 삶의 질을 예언하는데 대한 중다회귀분석결과

변 인	B계수	표준오차	β계수	T	p
환경적 안전욕구	-.02	.06	-.01	-.38	.70
성장욕구	1.56	.07	.46	21.74	.001
R^2 = .21	$F_{(2,2141)}$=675.49(p<.001)				

지 아니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를 분석하였다. 즉 수입, 학력, 직위 등의 변인을 통제한 후 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β=-.04, p<n.s). 즉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자신의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충족도에서의 성의 차이는 실제로 순수한 성의 차이 때문이라기 보다는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하는 욕구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의 평가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최근 한국 리서치(1996)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5점척도)의 결과와 대조적이다. 즉 한국 리서치의 결과에서는 15-17세 연령층에서 행복감이 예외적으로 낮았을뿐 연령증가와 더불어 행복도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차이는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의 차이 때문일 수 있는데 즉 몇몇 연구들(Campbell, 1976; Peter 등, 1991)에 의하면 '행복도'는 젊은층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만족도'는 젊은층에서 가장 낮고 연령증가와 더불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결과와 한국 리서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삶의 질' 연구는 대부분 단일 차원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들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혹은 '당신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하나의 차원일 뿐이며 좀더 포괄적으로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로 가장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층의 주관적 삶의 질이 매우 낮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표본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의 표본은 근로자 집단으로, 10대 근로자 집단은 교육을 받을 나이에 교육받지 못하고 일해야하는 상황 때문에 그들의 주관적 삶의 질이 매우 낮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리서치 연구결과(1996)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행복감은 낮아지나 예외적으로 15-17세 연령층에서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들이 산업전선에 있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행복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임을 일깨워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연구의 문제점과 더불어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관적 삶의 질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는 주관적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행복도, 만족도의 용어로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대부분 주관적 삶의 질은 자기-보고 형식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보고는 질문을 해석하고 단기·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끄집어 내고, 비교기준을 선택하고, 비교를 행하는 복잡한 인지적 판단과정이다.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이러한 판단과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몇 가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인지적 판단은 현재의 기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로써 비가 오는 날, 좋아하는 야구팀이 결승전에서 이긴 날의 주관적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분이 주관적 삶의 질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기는 하나 그 상관정도는 크지 않다(Diener, 1994). 주관적 삶의 질을 판단하는데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이다. Carstensen 등(1983)은 이러한 요인이 자기-보고 형식의 주관적 삶의 질 측정의 타당성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 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응답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주관적 삶의 질 측정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 번째는 척도에 대해 응답자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척도 상에서 한 응답자가 '3'이라고 반응한 것이 다른 응답자의 반응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연구자는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정서적 경험의 빈도(시간)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Diner, 1994). 즉 경험의 빈도(시간)는 비율적인 속성이 있어서 즐거운 기분을 갖는 시간이 전체의 80%라고 대답한 피험자는 40%라고 대답한 피험자보다 두 배가 더 즐겁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행복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른 수 있다는 데서 기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주로 문화간의 차이로 행복을 표현하기보다 행복을 감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문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관적인 삶의 질 평가는 낮게된다.

참고 문헌

노익상 (1996).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사회계**

층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국 리서치.

이명신 (인쇄중).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Andrews, F. M., & McKennel, A. C.(1980). Measures of self-reported well-being: Their affective, cognitive, and other compon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 127-155.

Andrews, F. M., & Withey, S. B.(1974).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Results from several national survey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1-26.

Bradburn(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Brickman, P., Coates., & Janoff-Bulman, R. J.(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17-927.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Campbell, A.(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Carstensen, L. L., & Cone, J. D.(1983). Social desirability and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elderly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38, 713-715.

Chamberlain, K.(1988). On th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581-604.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Diener, E., & Emmons, R. A.(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Diener, E., Larsen, R. J., Levine, S., & Emmons, R. A.(1985). Intensity and frequency: Dimensions underlyi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253-1265.

Diener, E., Sandvik, E., & Pavot, W.(1991). Happiness is frequency, not intensity, of positive versus negative affect.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Eds.),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Pergamon Press.

Diener, E., Sandvik, E., & Pavot, W.(1991). Happiness is frequency, not intensity, of positive versus negative affect.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Eds.),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Pergamon Press.

Emmons, R., & Diener, E.(1985a). Factors predicting satisfaction judgements: A comparative examin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157-168.

Gove, W. R.(1972).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s, marital status, and mental illness. *Social Forces*, 51, 34-44.

Haynes, S. G., Feinleib, M., & Kannel, W. B.(1980). The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factors to colonary incidence of coronary

heart diseas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1(1), 37-58.

Headey, B. W., Holmstrom, E., & Wearing, A.(1984). Well-being and ill-being: Different dimmens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 115-139.

Headey, B. W., Holmstrom, E., & Wearing, A.(1985). Models of well-being and i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 211-234.

Inglehart, R., & Abramson, P.(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ew Jerse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ammann, R., Farry, M., & Herbison, P.(1984). The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sense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 91-115.

McKennell, A. C., & Andrews, F. M.(1983). Components of perceived life qual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98-110.

Michalos, A. C.(1986). Job satisfaction, marital satisf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A review and a preview. In F. M. Andrews(Ed.),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Near, J. P., Smith, C. A., Rice, R. W., & Hunt, R. G.(1983). Job satisfaction and nonwork satisfaction as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126-144.

Nelson, D. L., & Hitt, M. A.(1992). Employed women and stress: Implications for enhancing women's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In J. C. Quick, L. R. Murphy, & J. J. Hurrell, Jr. (Eds.), *Stress and Well-Being at Work*(pp. 178-192). Washin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lson, D. L., & Quick, J. C.(1985). Professional women: Are distress and disease inevitabl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0, 206-218.

Nolen-Hoeksema, S.(1987). Sex differences in unipolar depression: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01-259-282.

Stones, M. J., & Kozma, A.(1985).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scales: A second order factorial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 19-28.

Szalai, A.(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A. Szalai & F. M. Andrews(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7-21).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Verbrugge, L. M.(1989). The twain meet: Empirical explanations of sex differences in health and mortali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282-304.

Warr, P., Barter, J., & Brownbridge, G.(1983). On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44-651.

Watson, D., & Tellegen, A.(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Wiley, M. G., & Eskilson, A.(1988). Gender and famiy/career conflict: Reactio of bosses. *Sex Roles*, 19, 445-465.

Wilson, W.(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Wood, W., Rodes, N., & Whelan, M.(1989).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2), 249-264.

Zautra, A. J., Guaraccia, C. A., & Reich J. W.(1988). Factor structure of mental health measure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514-519.

Gender differences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Myong-Shin Lee · Hoon-Koo Lee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determined the effects of gender differences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2410 workers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analysis, male worker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life than female workers. One of the reason that female workers were less satisfied with their life, was less satisfied with their need than male workers. However, the gender differences of the need satisfaction was rather net gender effects than status effects.